

나라마다 적지않은 국가예산을 써가면서 氣象業務를 대행하고 있음은 그 목적이 국내적으로는 氣象災害의 예방을 비롯하여 陸上, 海上 및 航空의 交通安全 확보에 힘쓰고 1차 산업을 비롯한 2차,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기상업무를 통한 國際協力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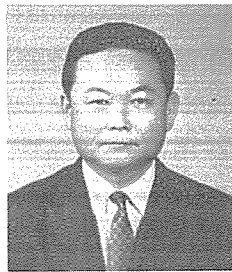
自古로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망아지는 濟州島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刺戟을 많이 받게되어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과 相通되는 속담임에 틀림없다.

오늘날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 또는 開發途上國이니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되었다. 선진국하면 경제적으로나 科學技術面으로나 기타 文化 社會面 등등 다른나라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세한 나라를 指稱함이 틀림없다.

그러나 자연재해면으로 보면 오늘날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나라는 다같이 자연재해가 극심한 나라들이다. 가까운 日本만해도 일년에 태풍이 여러 차례 지나가게 되고 地震活動이 활발하며 集中豪雨는 말할것도 없고 東北地方은 종종 여름철의 冷害로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여 겨울철 東海쪽으로는 눈이 깊게 쌓이는 등 사람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활동하기에는 너무나 自然災害가 심한 나라이다.

세계적으로도 으뜸간다는 美國 또한 예외가 아니다. 地震 활동은 말할것도 없고 태풍과 같은 허리케인이 수없이 來襲해 오며 우박 또한 위협적 이어서 주먹같은 큰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 家畜 등의 피해가 적지 않

## 自然災害와 先進國



金 鎮 冕  
(中央觀象台長)

으며 여름철 數百回 발생되는 도베도현상이야말로 공포현상에 틀림이 없다. 간혹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수가 있는데 이는 龍卷음 현상이라 할까 싸늘이 바람이라 할까 할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도베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建築物이건 樹木이건 모조리 때려부수고 지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하고 모두 地下室로 避身을 해야될 정도이며 만일 사람이 이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게 되면 사람이 바람에 날려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겨울철 寒波가 내습하게 되면 아열대 지방까지도 零下氣溫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積雪이 심하여 교통이 두절되는등 자연재해가 대단히 많은 나라인 것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라 해도 颱風의 영향을 받는것이 평균 일년에 2회정도이고 여름철 여기 저기 集中豪雨가 년평균 5회정도이며 그 밖의 재해는 우박이라든가 海溢 突風 등이 있기는 하나 선진국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재해가 적은 나라이다.

이와같이 선진국들은 자연재해가 심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自然災害에 대한 예방 또는 被害減免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수 없어서 꾸준히 조사연구를 진행시킨 결과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재해의 發生頻度가 적고 被害程度도 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관심밖의 일이 되기때문에 科學이 발달하지를 못하여 뒤로 처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람이 서울로 가야 많은 자극을 받아 똑똑해 지는것과 같이 自然災害가 심한 나라일수록 科學이 발달하게 되어서 先進國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偶然의 一致인지도 모르겠다.